

20일로 사제서품 60주년 맞는 윤공희 대주교

“사제로서 삶 보람... 소외된 이웃위해 기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길 기도하겠습니다.”
나눔과 사랑을 몸소 실천해 온 윤공희(86) 대주교가 오는 20일로 사제 서품을 받은 지 60주년을 맞는다.

광주교구장때 5·18항쟁 겪어

그해 3월20일 사제서품을 받고 성직자의 길에 들어선 그는 유신정권과 5·18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60여년을 소외된 이웃과 늘 함께 해 왔다.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성품 때문에 그동안 언론과 인터뷰를 사양해온 윤 대주교는 지난 12일 나주시 광주 가톨릭대학 주교관에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 응했다.

사제 서품 60주년을 맞아 사회에 대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지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사제로서 삶이 보람된 삶이라고 생각하고, 일평단심 사제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으로 봉사하는 삶이 보람되었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다”고 회고했다.

“광주 특별한 경험과 역사 가진 곳”

수많은 시민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질때 그는 울곧은 정신으로 시민을 대표하며 늘 그들과 함께 했다. 윤 대주교는 당시 상황에 대해 “1980년 서울의 봄으로 민주화에 대한 희망의 싹이 트고 민주정부를 세울 수 있었지만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군부독재가 다시 시작됐다”며 “광주 시민들이 민주화를 부르짖고 정의를 외치는데 교회가 함께 할 수 밖에 없었고, 정부의 탄압 속에 진실을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가 진실을 말하는 노력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큰 시련과 아픔을 가진 광주 시민들에게 용서가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주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다”고 회상했다.

“광주 특별한 경험과 역사 가진 곳”

그는 이어 “광주 민주화운동은 민족의 큰 시련이었지만, 인권 존중에 대한 좋은 교훈을 얻었다”며 “그 교훈을 잘 살려 모든 국민들이 팔고루 잘 살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중문화협회 회장

김호남 근화건설 대표



목포지역 건설업체인 근화건설(주)의 김호남 대표가 (사)한중문화협회 전국협의회 회장에 선출됐다.
14일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는 최근 열린 한중문화협회 지회장 회의에서 김 대표가 전국협의회 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정신간호사회장에



정순아 서강정보대 간호과 교수가 최근 광주전남 정신간호사회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다. 이인숙(광주시립인광병원 간호부장)씨는 부회장으로 선 임됐다.

인사

- ◆보혜양호 ◇상무 승진 ▲연행식 제1영업무부장

광주은행 전산센터 이전 완료



송기진(앞줄 오른쪽) 광주은행장이 최근 서울 잠실 삼당동으로 이전한 우리금융전산센터를 방문해 전산장 등 내부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신세계 만나푸르나 원정대 후원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이장환·오른쪽에서 두번째)는 최근 서구 화정동 (사)광주·전남 비전 21 사무실에서 열린 ‘장애인 희망만들기-2010 마나슬루·안나푸르나 원정대’ 발대식에 참석, 김홍빈(가운데) 원정대장에게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제공)

이주여성 삶의 애환 등 담아

이상욱 전 광주일보 이사 네번째 수필집

이상욱 이주가족복지회 이사장(62·전 광주일보 이사)이 네번째 수필집 ‘행복생굴의 참새’(휴아트 펄블)를 출간했다.
책은 “이주여성에 미쳤다(?)”는 평을 들어도 마냥 좋아하는 이 이사장이 지난 5년간 이주여성과 함께한 기록으로 그가 센터장으로 있는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홈페이지와 개인블로그, 싸이 등에 썼던 글들을 모은 것이다.
책은 ‘배움터에서’, ‘참새일기’, ‘가족이야기’ 등으로 나눠 이주여성과 함께 한 생활이야기, 삶의 애환 등을 담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2700여 명곡 남기고 대중가요 거목 떠나다

‘비 내리는 호남선’ 작곡가 박춘석씨 별세

뇌졸중으로 16년간 투병하던 원로 작곡가 박춘석씨가 14일 오전 6시 별세했다. 향년 80세.
유족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빈소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0호에 마련됐다.
지난 1930년 5월8일 서울에서 태어난 박씨는 조선고무공업주식회사를 운영하던 부친의 밑에서 유복하게 자랐다. 본명은 의병(義秉), 춘석은 아명이다.
경기중 4학년(고교 1년) 때 김육운·베니 김 등의 제의로 명동 ‘황금클림’ 무대에서 서면서 피아니스트로 활동을 시작한 그는 1954년 ‘황혼의 엘레지(노래 백일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작곡가의 길로 들어섰다. ‘비 내리는 호남선(손인호)’ ‘아리랑 목동(박단마)’ ‘삼팔선의 봄(최갑석)’ ‘사랑의 땀(패티김)’ ‘바닷가에서(안다성)’ ‘밀짚모자 목장가(박재란)’ 등을 발표하며 인기 작곡가로 부상했다.
가수 이미자와의 만남은 그의 음악 세계에 큰 변화를 몰고 온다. 이미자와는 그동안 ‘삼마를 선생님’ ‘기러기야빠’ ‘후산도 아가씨’ ‘황혼의 블루스’ ‘그리움은 가슴마다’ ‘삼백리 한려수도’를 비롯해, 30주년 기념음반 타이틀곡인 ‘노래는 나의 인생’까



고 박춘석씨의 빈소가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가운데 14일 오후 가수 이미자씨가 조문을 마친후 나오고 있다. 고인은 이미자씨와 ‘삼마를 선생님’, ‘후산도 아가씨’ 등 500여곡을 통해 작곡가와 가수로 호흡을 맞춰 왔다.

지 무려 500여 곡을 통해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다.
작곡가 박춘석의 이름 뒤에는 항상 ‘사단(師團)’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1960~1970년대 패티김, 이미자, 남진, 나훈아, 문주란, 정훈희, 하춘화가 박춘석 사단의 멤버였다. 그는 이들과 함께 ‘가슴 아픈게(남진)’ ‘마음이 고와야지’(남진)를 비롯해 ‘조우(패티김)’ ‘타인들(문주란)’ ‘호반에서 만난 사람(최갑석)’ ‘방앗간집 둘째딸(자비나래)’ ‘마포종점(은방울가매)’ ‘별은 떨어도(정훈희)’ 등 한국인의 가슴을 적신 슬픈 명곡들을 만들어냈다.
오아시스레코드사 전속작곡가, 지구레코드사 전속작곡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거성레코드사 사장 등을 거치며 1950~1980년대 한국 가요계를 이끌어온 그는 국내 대중가요 개인 최다인 2천700여 곡을 작곡했고,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개인 최다인 1천152곡이 등록되어 있다.
이런 고도 1994년 8월 뇌졸중으로 쓰러지면서 모습을 감춰다, 16년간 투병하면서 거동은 물론, 언어장애로 의사표현도 하지 못했다. 고인은 “음악과 결혼했다”며 평생 독신으로 살았다. 지난해 그의 음악적 업적을 기리는 박춘석 기념사업회 추진위원회가 발표했다. 장례는 5일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18일 오전 8시. (연행식)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살아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중친회

- ▲함평노씨 한림공 중친회(회장 노병철) 정기총회=16일(화) 오전 11시 광주상록회관 3층. 018-627-0333.
▲가락 광산구 중친회(회장 김영호) 월례회=19일(금) 오전 11시 중친회관 2층. 062-944-1951.

알림

-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 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인구보건복지협회. 성폭력상담소=성폭력(의료, 법률, 상담지원), 청소년성상담 및 성교육 등. 062-673-1366, 062-671-4050.
▲사회복지법인 수원실버빌 노인

- 종합복지센터=65세 이상 요양등급 판정 1~2등급 인정받으자. 기초생활서비스·의료서비스·재활서비스, 여가, 사회, 주·야간보호 등. 062-959-2340.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부부갈등·가족갈등·체류·국적취득 등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인해 긴급보호가 필요할 때 자국어로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가 가능한 기관. 경찰, 병영 보호시설 및 유관기관들이 요청하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통역을 통한 긴급지원서비스함. (광주센터)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062-366-1366, 367-1577, 368-1577.
▲광주생명의 전화(대표 소진택) 24시간 전화상담(1588-9191)=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일반 면접 상담, 위기 가족문제, 자녀문

- 제, 자살 등 상담. 062-223-9191.
▲사주 쉽게 배울 분 개인·단체 환영=광주시 북구 우산동 자담역리화회. 062-263-0208.
모집
▲광주시 효령노인복지타운 실버농장 회원 모집=19일까지 만 60세 이상 건강할 노인, 회비 없음, 농장 운영기간은 10월말까지 개인당 16㎡(5평) 문의 062-603-9853.
▲진월간호전문학원 간호조무사 교육생 모집=국비지원혜택·고용보장가입 근로자 혜택. 062-653-6690~1.
▲(사)우리문화예술진흥원 사무직원 채용=문화예술관련 전공자, 컴퓨터 활용 능력자 우대. 12일 접수 마감. 계약직, 월 90만원(주 40시간), 근무와 초과 수당 지급. 062-523-0474.

-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 수시 모집=광주 북성중학교 오전만 5시 30분~7시30분. 011-618-7882.
▲북구문화원 사회교육강좌 수강생 모집=풍수지리, 생활역학, 명심보감, 관상학, 노래교실. 062-527-7701
▲광주 외국인 홈스테이(Feel@Home) 호스트 모집=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주시 가정으로 한국인의 금지를 갖고 외국인을 가족처럼 대할 가정, 인종이나, 종교, 외국문화에 대한 편견이 없는 가정 등. 손님용 숙박 및 침구제공, 아침식사 제공, 화장실, 주방시설 및 기본 가전제품 공동사용 가능한 가정. 문의 광주시 관광진흥과(062-613-3633), 광주국제교류센터(062-226-2734)
▲베데스다노인요양원 어르신들 모집=노인장기요양보험지정기관으로 편선형의 최신 시설로 건축, 비

- 응부담 없이 최신 시설을 이용하시며 전문적인 직원들과 자식같은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모심. 061-371-8090.
▲생활 체육 배드민턴 회원 수시 모집=풍암 초등학교 아침 5시30분~7시 30분. 010-9877-6166.
부음
▲이순례씨 별세 강대상·대철·대석(전남도 노인복지과장)·대웅·경승·대길·대숙씨 모친상=발인 16일(화) 무등장례식장 101호. 062-515-4488.
▲김순태씨 별세 영복(세종대학교 교수·대웅·영심·영희·해영씨 부친상=발인 16일(화)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조인성씨 별세 정희·대희·복희·광희·옥희·수희씨 부친상=발인 16일(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정기철씨 성길·성근·경희·경숙씨 부친상=발인 15일(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

- 231-8905.
▲박양순씨 별세 양광모·용모·귀순·정순·혜경·희례씨 모친상=발인 15일(월)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2분향소. 062-231-8902.
▲이쌍임씨 별세 송상현·상빈·상주씨 모친상=발인 15일(월) 학동 금호장례식장 101호. 062-227-4000.
▲안시숙씨 별세 준영·남영·현숙씨 부친상=발인 15일(월) 학동 금호장례식장 301호. 062-227-4000.

마음까지 편안함 - 금호장례식장 227-4000
故 박우상님(남/89세)
주/부: 박만중, 박정호/오매곡
부: 박순/이수현
자: 박영민/김영모
장: 03월 15일
장지: 부곡역다선역
심기: 고인의 명복을 빌다.
빈주차장 - 정갈한 음식!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약속! 프리드 대한민국장례문화
현대종합상조가 책임지겠습니다.
가입문의 1566-4499 현대종합상조 전속대표 노주현